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 오신 왕 중의 왕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신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 드리는 축복 된 성탄 되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 12월 23일 (토) 제 1950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비움, 성탄(聖誕)과 송년(送年)의 미학(美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질병 중에 저장(貯藏) 강박증이 있다. 물건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버리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증상을 말한다. 언젠가 입겠지,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보겠지 하면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사람마다 의외로 많다. 필자만 해도 그렇다. 아내가 치수가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하자고 하면 언젠가 다시 그 체형이 될 수도 있겠다며 한사코 반대한다. 책도 그렇다. 그 책을 구매하고도 잘 읽지 않았고 앞으로도 읽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무수한 책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열심히 끌고 다니고 있다. 폐기물 수준의 물건을 쌓아 두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 그래도 그들보단 낫지 않은가 싶어 스스로 위로해 본다.

비움은 성탄의 시작이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의 비움은 쓸데없는 것을 비우신 것이 아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비우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신 것이다. 이 시대는 누구를 밟아서라도 더 높아지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빼앗아서라도 더 채우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걸으셨다. 비우신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있으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가신 것이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낮춤과 복종과 죽으심에 이르시기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셨다. 며칠 전 선교 모임이 있어 다녀왔다. 여러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지역은 다양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었다. 그분들의 선교 사역은 예외 없이 '자신을 버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분들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2천여 년 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어 구유에 누우셨다는 베들레헴 이야기는, 비움이 없는 오늘의 우리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탄의 시작인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리라.

비움의 영성은 송년(送年)의 시간에도 필요하다. 벌써 2023년 송년이란 말이 실감 나지 않는다. 꿈꾸듯 지나갔고 바람이 불듯 날아간 시간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노을은 한껏 고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은 뭔가 무겁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의 아쉬운 장면들이 여럿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회(後悔)와 회한(悔恨)을 품은 채 새해를 맞고 싶지 않다. 멋지고 풍성한 공원을 가꾸는 일에 무수한 가지치기가 있음을 많이 보았다. 가지치기에는 아픔이 있어도 멋진 보상(補償)이 약속되어 있다. 이 노래가 2023년 송년에도 여전히 뜨끔하게 들린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곳 없네----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렇다. 내 안엔 아직도 내가 너무 가득 차 있다. 내 속엔 가시 가지가 너무 많이 돋아 있다. 다 가지 치고 싶다. 다 쏟아 내고 싶다. 다 비우고 싶다.

비움은 성탄과 송년의 영성(靈性)일 뿐 아니라 또한 미학(美學)이다. 미학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담론(談論)이다. 채움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 추한 채움도 많이 있다. 그러나 비움은 언제나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그리고 비움에는 항상 다가올 신선한 채움에 대한 설렘도 담겨 있다. 비움으로 성탄 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비움으로 맞이하는 새해, 얼마나 아름다울까. 비움, 성탄과 송년의 미학이여!

성탄축시

왕이 오셨네

박영실 시인
(주의 길교회 사모)

오랫동안 기다린 거룩한 예언 성취
통치자가 없는 암흑시대 지나고
때가 차매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나셨네

이천 년 전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 예물을 드리니
온 땅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네

남루한 말구유가 왕좌가 되었네
그분이 머무신 곳에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네

낮은 자, 비천한 자 높이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네

억눌린 자 결박을 끊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사람들 문화 속으로 친히 찾아 오셨네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진
죄인들 살리시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임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왕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임하셨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시니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네
온 열방에 구원의 빛이 가득하네

왕이 오셨네
온 땅에 평화가 임하네

박영실
사모, 시인, 수필가, 동화 작가, 칼럼리스트

2면
시 론
민경엽 목사

3면
성탄절 특별설교
고택원 목사

13면
본지가 보도한 10대뉴스
편집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회의 본질
목회 전략과 방법
평신도 제자훈련
제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2024년 4월 29일(월) - 5월 4일(토)
평신도를 깨운다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475 일반등록 → $420 조기등록할인 (3월 11일까지)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dmi.sarang.com
문의 714.636.3000
CAL SEMINAR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국제제자훈련원

시 론

‘다시’ 일어나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늘 그렇게 말해 왔지만, 올해 역시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끝나가는 팬데믹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환경 재앙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서민 입장에서는 치솟은 물가가 이런 모든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한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행복하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잠언 24장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지혜자는 전 생애에 걸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 보석 같은 귀한 것을 가득 쌓아놓는 사람이다. 반면에 우매자는 초라한 움막 같은 곳에서 살 뿐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숨 막힐 정도로 쌓아놓는 사람이다. 한 번뿐이라 일생인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지 언제나 재삼재사 숙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에 매듭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한 해를 잘 살았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새 출발의 선상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서라. 이번 생은 망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그 간의 부진을 씻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우선, 전략으로 싸우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6절)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지략이 많은 나라다. 힘은 약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에 육해공으로 치명타를 입혔다. 이스라엘 역시 땅굴을 판 하마스에게 바닷물을 퍼붓는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근본적인 참된 지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우산이 비를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비를 맞지 않게는 해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삶에서 시련을 제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철두철미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연말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라.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10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도의 삶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은 금물이다. 사탄이 가장 먹기 좋아하는 요리는 성도의 낙심이다.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이 바닥이 났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는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성도여야 한다. 문제를 돌파할 지혜가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환난을 넘어갈 지혜를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다.(약 1:5)

〈6면으로 계속〉

내가 꼽은 2023년 10대 신학 사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ChatGPT, Z세대 영적 부흥 조짐, 팀 켈러 사망...

수년 동안 J. K. 롤링은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트랜스젠더를 거부하는 거의 유일한 주류 인사였다. 한때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펜을 휘둘렀던 그녀가 논리적으로 볼 때 성혁명의 다음 단계를 밟지 않음으로써 많은 팬은 배신감을 느꼈다.

악명 높은 Tavistock 성 정체성 클리닉이 작년에 폐쇄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성명을 통해서 동성 결혼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혼합 지지와 트랜스젠더 이념 거부를 비준했다.

그리고 10월 7일에 군인과 민간인, 남녀노소를 불문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었다. 실로 엄청난 놀라움과 공포를 가져다준 사실은 서구의 주요 도시와 명문 대학 캠퍼스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군중이 모였다는 사실이다. 하마스가 LGBT+ 정체성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위자들은 스스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결국, 하마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훈련하고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마스가 자유주의 지지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일부 하마스 지도자들은 억압받는다는 주장이야말로 자신들을 감시하는 서구 세계를 향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 시위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량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비난할 준비도 하지 않고 의회 청문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야샤 뭉크(Yascha Mounk)는 이런 현상을 “정체성 합성”이라고 부른다. 뭉크는 신작 The Identity Trap에서 올해 들어서 좌파 진영에서 과도한 비판적 인종 이론과 교차성, 그리고 성, 인종, 성별에 따라 정체성 그룹을 양극화하는 기타 교리에 대한 반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이리저리 맞물린 탄압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동성애자” 그리고 여성 스포츠를 장악한 남성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등 전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뭉크는 이렇게 썼다. “누군가가 교차성에 헌신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운동의 활동가들은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이 인종 차별의 본질, 장애인이 겪는 불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일련의 구체적인 입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뭉크의 우려를 공유하는 사람은 러시아 문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인 Northwestern University의 게리 사울 모슨(Gary Saul Morson) 교수이다. 새로운 대작, Wonder Confronts Certainty에서 모슨은 “피해는 그 자체로 악에 대한 하나의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이제 자신이 초래하는 피해를 정의의 한 형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의 관찰은 하마스의 공격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모슨은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복음의 심리학적 진리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도스토옙스키는 기억에 남는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설명한다. 악은 단지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욕망이기도 하다. 살인자의 행동만이 악이 아니다. 악은 비통한 마음이 품는 의도에도 담겨 있다. 그렇기에 억압받는 사람이 종종 억압자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악한 시대를 통해 길을 보여주신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억압의 순환에 쐐기를 박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요 15:13).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다(눅 6:27). 정체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복음은 더욱 빛난다.

매년 회고의 글이 그렇듯, 올해에도 최고의 신학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서 나는 TGC를 구독하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글을 쓴다. 이것은 작은 세상 한 구석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모습이다.

10. 남침례교 총회는 여성 목회자 문제로 새들백 교회를 제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가장 유명한 목사가 개척한 교회와 관계를 끊는 순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 릭 워렌은 여성을 주요 사역 직위에 앉히지 못하도록 하는 교단의 견해를 바꿔 달라고 남침례교 총회에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꼭 워렌이 아니더라도, 여성을 목회자라고 부르는 교회를 훨씬 더 많이 제명할 근거를 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거의 모든 신학적 요점에 동의하는 침례교도들조차도 선교를 중심으로 연합된 이 협약에서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해서만은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9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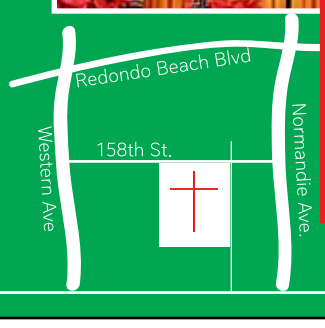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동진 목사의 성탄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잔잔한 호수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온갖 공격적 감정, 무력하게 하는 감정,
포기와 낙심과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생각들을 향한 선전포고이며
마침내, 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곤고한 인생들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 성탄맞이 NOW 찬양모임 : 12/15(금) 오후 7:30
● Children Concert(The Well Church) : 12/17(Sun) 4:30pm
● 성탄 주일예배 : 12/24(주일) 오전 11:00
● 성탄축하 음악예배 : 12/24(주일) 오후 7:00
● 성탄, 삶의 예배 : 사랑의 BAG나눔(성탄/연말기간 홈리스들에게)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www.sunghwachurch.org (213)447-3118

성탄절 특별설교

예수님 탄생, 인류의 소망

마태복음 1:18-25

고택원 목사

(전 KAPC 총회장, 새한장로교회 원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베르너 렘케(Werner Lemke)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이 진격해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때 베르너의 형이 "잠깐만!"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님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개역개정 71장)' 가족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정말 그들의 도움과 소망이 되시고 피난길에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고 힘든 피난 생활을 잘 극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히 6:19)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롬 8:24)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고 죽음의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인류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파멸에 빠질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은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을 낳은 한나,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 등이 대표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모두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였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아담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남자로 인하여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면 그분도 역시 인간이며 죄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석가모니 역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죄인이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분 몸속에는 죄인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자로서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밭은 심겨진 씨를 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내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냅니다. 즉 마리아는 밭으로써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의 것을 내고 죄 없는 씨를 심으면 죄 없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면 죄 없는 자를 낳고 사람으로 잉태하면 죄 있는 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실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순결한 여자입니다. 그가 남자를 모른 채 임신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안 요셉도 갈등하며 고민했지만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오시는 메시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2.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죄에 갇혀 있던 상태. 그분이 죄에 갇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 프랑스 139편 항공기가 중간 기착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내렸다가 이륙한 직후 아랍계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된 여객기엔 유대인 79명을 포함한 24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대통령으로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갔습니다. 범인들은 엔테베 공항에 인질들을 억류한 채 각국에 수감 중인 53여 명의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비상회의를 열고 구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구출작전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리도 멀거니와 이디 아민 대통령은 인질범 쪽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파견했습니다. 항공기가 납치된 지 일주일 지난 날 자정, 엔테베 공항의 정적은 갑작스러운 총 소리와 폭발음으로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공대원 100여명은 수송기를 타고 저공비행으로 엔테베 공항에 와 착륙합니다. "번개(썬더볼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작전에서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특공대원들은 인질범들을 작전 돌입 몇 분 사이에 모두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송기가 착륙해서 이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2분. 이 작전에서 이스라엘 특공대의 희생자는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로 현장에서 특공대를 지휘했던 당시 서른 살의 조나단 네탄야후 중령이었습니다. 조나단 네탄야후는 수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스런 보좌도 포기하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 23:4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히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이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에벤에셀의 은총이 너무나 커서 감사가 넘칩니다. 공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애를 태우며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면 임마누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가정, 자녀, 경제, 대인관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여호와이레의 은총이 믿어져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택하여 그를 데리고 정글 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곳에 혼자 남겨놓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깊은 밀림 속에서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아이는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기 혼자인줄 알았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완전무장을 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항상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야말로 소중한 날이요, 소망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낙심할 처지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위기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그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이 가장 귀중한 보배임을 시인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분을 마음 가장 중심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taekwonkoh@hotmail.com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애독해 주시는 모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기도로, 물질로, 필진으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기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김성국 목사와 임직원 일동 드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마1:21)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천 년 전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요셉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자로서 배신감에 잠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동네에 알리면 마리아는 정혼한 상황에서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고로 요셉은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런 상황에 주의 사자가 방문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한 마디에 이제껏 가슴앓이하던 답답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설명을 듣게 되자 모든 의혹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릇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실 때 모든 의혹은 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에 대한 예언을 받았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아들을 낳게 되는 데, 그의 이름을 예수(구원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가 자기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도록 성자하나님을 육신을 입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용서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성탄은 이런 뜻깊은 날이요, 택하심 받은 자들을 위한 전무후무한 감격스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으로 세상을 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이야 말로, 그 재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매체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고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던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던지 막론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데 성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재확인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chiesadiroma@daum.net

베드로 진서 13

약병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집을 한 번씩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화장대 또는 거울 앞에 웬 약병이 이리도 많을꼬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젊었을 때, 그리고 철없는 마음이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나의 책상 위에도 여러 약병이 점점 늘어나고 수두룩한 것을 본다. 때로는 내가 부흥회를 가려고 가방을 정리하다 보면 나 역시 약병을 챙긴다. 한 두 개가 아니다.

나 역시 젊을 때는 속으로 뭐라고 말했던가? 그런데 오늘의 나 역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을 비롯해서 나이가 들었으니 영양제를 먹어라 해서 먹겠다고 둔 것이 점점 개수가 늘어난다. 때로는 목사님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 중에 또는 식후에 뭔가 입에다 털어 넣고 계시는 분들도 본다. 무슨 약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을 먹었을까? 약은 아니래도 약초? 좋은 고기? 생선? 하면서 상상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나? 들었나? 주일 예배에 나왔던 집사가 축도 전에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몸이 편찮은가? 다른 성도와 마음이 상했나? 걱정하며 전화했더니 주일에 선약이 있어 급히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집사님 주일에는 구약과 신약만 있지 선약은 필요없습니다."라고 했단다, 목사님의 마음을 읽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거울 앞에 화장대 앞에 수두룩한 약병들 사이에 구약과 신약의 약병은 항상 놓여있는가?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든다.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홍해 뱃길 올스톱… 물류대란 비상

전 세계 무역량의 12%가 오가는 홍해 바닷길이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막힐 위기에 처했다. 세계 2위 석유회사 BP는 홍해를 통과하는 석유 수송을 중단했고, 글로벌 해운사들은 우회로로 옮겨가고 있다. 물류대란이 확산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도 치솟을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는 18일(현지시간)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벨기에 유조선사 유로나브와 노르웨이 정유사 에퀴노르도 홍해를 우회해 수송하기로 했다. 머스크, HMM 등 주요 해운사들은 이미 홍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해운사들이 우회 경로를 택하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짧게는 8일, 길게는 15일이 더 걸린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임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해 바닷길은 유럽과 아시아의 최단 운송 경로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주요 해상 수송로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곳을 지나는 민간 선박까지 공격받고 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홍해의 해상 안전을 위해 다국적 해상보호군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최근 예멘발 후티 반군의 무분별한 공격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고,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72.47달러로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1.8% 오른 77.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10월 초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한 뒤 한 달 만에 70달러대로 안정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유가가 다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中 간쑤성 지진으로 최소 127명 사망… 1년 3개월 만에 최대 피해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18일 밤늦게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93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된 쓰촨성 지진(규모 6.8) 이후 1년3개월 만에 또 다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19일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9분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발생 깊이는 10㎞다. 관영 신화통신은 간쑤성에서 113명, 인근 칭하이성에서 14명 등 모두 12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부상자가 수백 명이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직선거리로 2200㎞ 떨어진 신장위구르자치구 아투스시에서도 이날 오전 9시46분 규모 5.5의 지진이 이어졌다. 린샤주는 해발 2000m 고지대로 이날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다. 긴급 대피한 마을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거리에서 불을 피우고 구조대를 기다렸다. 중국 정부는 지진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억 위안(366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배정했다.

쉬시웨이 중국 지질대 교수는 "지진 발생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건물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 않은 데다 새벽시간대에 대피할 틈이 없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진앙이 위치한 곳은 칭짱고원의 북동쪽 가장자리로 역단층이 널리 분포해 있다. 지난 9월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9 지진 때와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08년 5월 8만7000명 이상이 숨지고 37만여명이 다친 쓰촨성 원촨 대지진도 이 단층대에 속한다. 올 들어 중국에선 규모 5.0 이상 지진이 12번 발생했는데 그중 8번이 간쑤·쓰촨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서부 지역에 집중됐다. 이 일대의 룽먼산 단층대와 라지산 단층대가 지진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다.

NYPD 178년 만에 첫 한인 총경 탄생… 허정윤, 한인 여성 1호 뉴욕경관

미국 뉴욕경찰(NYPD)이 18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의 허정윤(사진) 경정을 총경 승진자로 내정했다. 미 최대 경찰 조직인 NYPD가 1845년 설립된 이래 178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총경이 탄생한 것이다.

허 내정자는 1998년 NYPD의 첫 한인 여성 경관으로 임용된 뒤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해왔다. 2003년 경사, 2011년 경위, 2016년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정으로 진급했을 때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NYPD의 높은 유리천장을 뚫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NYPD에서 경감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부터는 지명을 받아야 한다. 허 내정자는 오는 22일 진급식에서 다음 보직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이스라엘, 美 압박에 가자지구 공격수위 낮추기로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8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저강도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에 따라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확산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이 전투 방식 변경을 압박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텔아비브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든 작전에는 단계가 있다. 우리는 고강도 작전에서 저강도 및 외과수술식 작전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전면전 대신 정밀 타격과 수뇌부 핀셋 제거 작전을 진행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뜻이다.

오스틴 장관은 "전쟁법을 지킬 때 민주주의는 더욱 강력해지고 안전해진다"며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전략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와 다음 단계 작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갈란트 장관도 "우리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강도로 계속 작전할 것"이라며 "곧 가자지구 여러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한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주민들을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쪽보다 북쪽 지역에서 (거주민 귀환을 위한 작업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가자지구 북부부터 작전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3주 안에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이스라엘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저강도 작전 전환을 강력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광 번쩍하더니 용암 '콸콸'…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0시 17분쯤 레이캬네스 반도의 도시 그린다비크에서 4㎞ 떨어진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폭발 전후의 영상을 보면 화산 폭발 당시 하늘에 섬광이 나타난 데 이어 용암이 능선을 따라 분출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아이슬란드 대학 화산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화산 폭발 뒤 용암이 100m 넘게 솟구쳤다"라고 보도했다. 현지 기상청에 따르면 분화 초기 약 2시간 동안 초당 약 100~200㎥의 용암이 흘러나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화산 폭발에 앞서 오후 9시부터는 지진도 발생했다. 폭발로 생긴 지면 균열은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됐다. 분화구가 열리면서 상당한 지반 변형도 동반됐다. 19일 0시쯤부터는 분화 지점의 지진 강도가 감소했으며 이와 함께 화산 폭발의 강도도 감소했다. 기상청은 "(화산)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분화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화산 폭발로 인근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의 비행편이 연착하거나 지연됐지만, 공항 운영이 중단되진 않았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번 화산 폭발로 생명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화산 폭발을 예측하고 지난 달 비상사태를 선포, 그린다비크 주민 4000명을 미리 대피시킨 상태였다. 그린다비크 북쪽에 있는 유명 관광지 블루 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했다. 현지 경찰은 일반인에게 화산 폭발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은혜받은 후의 삶

- 기본기, 가르침, 훈련 -

평생에 힘쓸 화두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교회와 예배'이다. 교회와 예배가 없이는 어느 영역이든지 아무런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온전한 기초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육적인 화려함과 멋져 보임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건강의 여의치 못함으로 곪아가고 있음에도 겉으로 드리워진 명품의 화려함만을 자랑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양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 없는 외양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튼실하게 변화되지 못한 내용물로 인해, 마침내 변질되어 악취 가득한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다.

모이지 않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다.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어 보여도 예배가 없으면 무너진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져 내린다. 예배가 없음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아와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않음을 말한다. 성도가 예배를 위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한다. 성도가 예배를 위해 교회 앞으로 나아오고, 힘써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마침내 세상의 변화를 주동하는 영적인 힘도 공급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사역자는 당연히 성도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도가 모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함이 이유이다. 세상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악한 욕심의 발로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가문, 자손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임을 알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 믿음이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며, 평생 그 좋으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 생각,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왜 다윗은 택하셨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지 않았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했다.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 예배, 성전, 주의 교회이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 성전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은 결국 예배의 회복이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그가 힘써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주셨다. 영적 회복,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땅의 삶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다윗은 누군가 자신에게 예배드리러 올라가자고 말만 해도, 그 마음이 기뻤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윗과 같은 축복을 원하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로 모이는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가? 욕심과 욕망보다 더 맛나고 귀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하도록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혜도 가르치고 훈련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훈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관계성을 무시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며, 그 특별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얻고 누리는 길에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은혜의 성숙한 향기와 맛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한다. 경건의 연습이 따라야 한다. 육체의 선한 복종이 뒤따라야 한다.

은혜는 훈련이 뒤따를 때, 그 열매를 보게 된다. 성경에 교육과 가르침이 있음은, 훈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한다. 신앙인이 살아갈 바른길에 대해 성경은 많은 가르침을 준다.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이 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대부분 동일하다. '주일성수, 헌금생활로서의 십일조, 전도, 봉사.' 등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한 기본기 훈련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 목회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 부담스러워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모든 것이 시간과 물질과 관계 때문이다. 말씀 중심의 설교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여 말해도 괜찮다. 그러나 헌금에 대한 설교는 오해할 만큼이나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본다. 왜 그럴까? 시간과 물질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데,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만 엄청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성도, 참 좋은 성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간과 물질, 삶을 드리며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이들이 좋은 성도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어도 이 부분을 통과하지를 못하니, 그 좋은 예수를 3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전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꾸러지지 않으면, 자신이 제일 큰 손해당사자가 된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마침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인데 그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독불장군처럼 외곬수가 되어 자신의 제한된 한계뿐 아니라,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가족 가문 자손 이웃이 받을 복을 놓쳐버리게 된다.

교회와 예배, 변화의 시작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생이 회복과 축복의 길로 갈 일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인생이 회복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교회와 예배 외에는 없다. 무엇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결론은 변화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변화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씨가 떨어졌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것이 변화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 있는 변화는 오직 한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세상천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범신론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공급받는 통로가 없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일정하게 들으며 신앙 생활했던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간증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예배의 기본기 훈련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이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라. 오직 한가지이다.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좇았을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 그가 섬기는 나라까지 망하는 것을 본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나도 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언제라도 교만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가리움을 받을 길이 있다. 예배에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이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회복이 된다. 회개가 된다.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때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본다. 그것이 또 나만 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가정과 가문까지도 함께 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구하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한다.

더불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침과 배움, 훈련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이 반복될 때, 교훈들이 뼛속 깊이 새겨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의 명백함이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복을 위해 세우신 예배이다.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될 때, 온전한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미국 청교도들이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들로 나누인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 실비치 이희은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정신적 지주

A: 좋은 질문입니다. 분리주의자인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포석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1630년 이후 보스톤을 중심으로 이민해 온 후기청교도들입니다. 10년 후에 1630년 영국의 비분리주의자의 지도자인 존 윈스럽 (John Winthrop)등 1,000명이 영국에서 이주했고 그후 10년간 18,000명의 이민자가 영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메사츄세츠에 도착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초로 헌법을 만들고 경건한 사회 즉 언덕 위의 도시(A city on a hill)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미국의 정신적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스톤을 중심으로 1636년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만이 선거할 수 있는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성도의 자격으로는 도덕적 무흠, 공중 앞에서 신앙의 고백, 회심 체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 역사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37년 인디언 사도였던 존 엘리엇(John Eliot)이 원주민인 인디언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원주민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인디언 문법책을 발간하고 청교도 경건 서적과 알곤킨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특히 엘리엇이 선교했던 인디언 마을마다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Covenan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약 적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적인 축복(Covenant Blessings)이 있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언약 적인 저주(Covenant Curse)를 받을 것을 근거로 언약을 강조했습니다.

존 윈스럽은 미국으로 오는 선상 설교에서 왜 우리가 영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새로운 세계로 왔는가? 그 대답은 A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를 세우기 위함이다. 마 5:14 절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델교회와 국가를 세워 모든 영국교회와 영국인들이 이 교회와 사회를 보라,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신세계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와 국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언약 (Social Covenant)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잉글랜드 지도자들은 신명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사건을 영국 국교회를 떠나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 것을 서약했고 그렇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실 것 (Covenant Blessings)을 약속한 것처럼 이러한 언약적 개념은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 정신과 신앙을 바탕으로 위대하고 강성한 미합중국을 건설했습니다. 성경의 기초하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함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오직

오직은 유일함을 뜻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여러 길이 아닌 오직 한 길만 있음이 오직이다. 스탕달은 사랑의 법칙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런 사람의 말에는 반론의 여지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이 유일함이 바로 오직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절벽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느 외국학자는 한국이 곧 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오늘의 뉴스에서도 두 사람이 결혼하여 0.7명을 낳는 인구소멸을 소개하였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두 명을 낳아야지만 본전 즉, 현상유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0.7명이라면 머잖은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아라!」(창 1:26-28. 메시지 성경). 이 말씀에 대해 개역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1:28)로 소개한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은 남자와 여자며 암수 한 쌍이다. 이것은 오직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런 조건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유전자를 이용한 복제술이다. 뉴스에 심심찮게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돼지를 복제했네, 개와 소를 복제했다는 소식을 넘어 사람복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라면 굳이 남자와 여자 혹은 암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복제기술을 소개하는 영화처럼 나와 같은 수십, 수백, 수천…, 너와 같은 수십, 수백, 수천…을 복제하여 만들어내면 된다. 인구절벽, 육아, 노동력 부족 등등이 절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부모가 없는 존재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생노병사(生老病死)도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병도 정복하고 수명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어 진시황의 불노초는 무색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즉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무너졌다고 하여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서 조차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손오공이 온갖 재주를 다부리며 여의주를 타고 순식간에 십만 팔천리를 이동했을지라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그 어떤 존재도 토를 달 수 없다. 그 말씀에는 자유니 민주니 독재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과학적 증명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이신 까닭이다. 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육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독재를 하십니까? 왜 인권을 무시하십니까? 등등 역시 통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주 만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의 번영과 세상의 발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에 다른 법이나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제(前提)다. 그럼에도 타락한 피조물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동기 아니 유혹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뱀의 유혹을 들어보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선에서 악까지, 즉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착각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설사 유전자 복제술로 인해 무한정의 사람을 생산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길이나 방법은 절대 아니다. 세포가 우연히 자연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주장하며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학설이라는 그 우연을 주장하는 이해부득이 만들어낸 허구에 더는 속지 않아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유일한 길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은혜임을 아는 것이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hanmackim@hanmail.net

추운 겨울방학…뜨거운 다음세대 '기도회'로 가볼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다음세대 사역단체 네임리스 캠프가 내년 2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침례신학대(총장 피영민 목사)에서 청소년·청년 대상으로 '네임리스 겨울 캠프'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11차(내년 2월 13~15일)를 시작으로 12차(내년 2월 15~17일)까지 잇따라 진행한다. 겨울 캠프 주제는 'THE SENT, 보냄 받은 자들'(눅 4:18~19)이다.

네임리스 관계자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했다"며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네임리스 캠프는 이름 없는 자들을 세워가고 주님의 이름만이 기억되는 캠프 되길 소망한다는 의미로 명명된 단체다.

이 단체는 교회와 학교, 캠퍼스, 지역 등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다음세대를 섬기는 공동체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위축된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최초 루게릭병원 착공 션이 남긴 말

14년의 긴 여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수 션이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착공 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션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오늘 드디어 204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착공식을 했습니다"며 "14년의 긴 여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글을 올렸다. 션은 22년째 루게릭병 투병 중인 박승일 전 농구 코치와 함께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로 국내 최초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힘썼다. 이날은 이 병원의 착공식이었다. 션의 간증은 많은 기독 유명인사들이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는 "결국 해내고야 마는 션 오빠 때문에 하나님도 바쁘심,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지만요"라고 축복했고, 가수 엄정화와 바다는 "아멘"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건립 예정인 루게릭요양병원은 24시간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전 와상 환자 중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거나 위루관 등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이들이 입원 대상이다. 병원은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통해 사회활동 단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지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는 루게릭병 특성에 맞춰 다양한 문화 여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해 사회 활동을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년 12월을 목표로 건립된다.

박승일 공동대표는 13일 착공식에서 "오래전 요양병원 건립이라는 꿈을 품고 희망과 기적이란 단어의 의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희망을 기적처럼 보게 됐다.많은 기부자와 제 꿈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이사를 통해 전했다. 션도 "박승일 한 사람이 꿈을 꾼 지 22년 만에, 그리고 제가 그 일에 함께하기로 한 지 14년 만에 루게릭요양병원을 착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한다"며 "건립을 위해 함께해 주신 30만여 명의 기부자와 기업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육군훈련소 최초…군 장병에게 '성탄'의 기쁨 전하다

2023 성탄축하 성탄트리 점등식 · 축하 예배

15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산하 연무대군인교회(강우일 목사). 성탄 트리에 빛이 들어오자 곳곳에서는 군 장병들의 감탄이 터져나왔다. 환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훈련을 받는 군 장병에게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전했다. 1951년 육군훈련소 창설 이래 공식적인 성탄 트리 점등은 이번이 처음이다. 높이 5m, 넓이 3m인 성탄 트리는 내년 2월까지 육군훈련소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이날 '2023 성탄축하 성탄트리 점등식·축하 예배'를 드렸다. 행사에는 오정호 MEAK 공동회장(예장합동 총회장)을 비롯해 이정우 MEAK 사무총장과 이석영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철휘 전 제2작전사령관, 훈련병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점등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오 공동회장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눅 2:8~14)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며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의 행복을 위해, 다음세대의 공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군 장병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 덧붙였다. 최장식 연무대육군훈련소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육군훈련소에서 진행하게 돼 뜻깊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장병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이자 미래를 이끌 영웅들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2부 점등식 행사에서는 군악대의 캐럴연주와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각각 축하 연주와 축하공연을 펼쳤다. 군 장병들은 공연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뼉을 치면서 소리 높여 호응했다. 홍성개 MEAK 명예이사는 축사에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어 홍 이사는 MEAK을 대표해 육군훈련소에 '희망 군 장병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시 론

〈2면에서 계속〉

끝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16절) 잠언에서 지혜자는 의인이다. 악인은 우매자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재앙이 닥쳐왔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진다면 그 자체로 악인이다.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즉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도 다시 일어난다. 일곱 번 넘어진다면 여덟 번 일어나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어린 아기조차 걸음마를 배우기까지는 약 2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난다고 한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견뎌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minkyungyob@gmail.com

무료 진료하고 향수 달래주고… 성탄의 기쁨 이주민들과 함께

장충단교회, 이주민들에게 치료의 손길 내밀어

한국교회가 성탄을 앞두고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과 특별한 교감의 시간을 나눴다. 병원에 가기 힘든 이주민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고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외로움을 달래주며 환대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17일 서울 중구 장충단교회(장승민 목사)에는 몽골 이주민이 모여들었다. 교회가 진행하는 이주민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다. 2015년 의료선교부를 조직한 장충단교회는 2년 뒤부터는 '오아시스 클리닉'이란 이름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이주민 의료 봉사를 이어왔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비대면 화상 진료와 약품 택배 발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10월 대면 의료 봉사를 재개했다. 내과, 치과, 한방 등 의사 6명과 통역 및 행정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이주민을 맞이했다.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50여명의 이주민이 찾아온다.

장승민 목사는 "우리 교회 인근 광희동에 '몽골타운'이라 불리는 몽골인 밀집 지역이 있다. 한국교회에 이주민을 환대할 책임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우리 교회가 이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서울몽골교회와 협력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는 등 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이주민은 주로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등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 때문에 근육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가 하면 채식을 거의 하지 않아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료선교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송치욱(전 고려대 의과대 교수) 장로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이나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많이 방문한다"며 "휴일에 자원봉사하는 게 쉽진 않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회는 이주민에게 성탄선물도 함께 전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나눴다. 아들딸과 함께 무료 진료를 받은 한 몽골 이주민(44)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됐는데 몽골 커뮤니티에서 무료 진료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다"며 "나와 자녀들이 모두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시름 놨다. 몸이 아픈데 돈도 없어 막막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Ⅲ. 청교도 교회언약 (Puritan Church Covenant) (4)

1646년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영국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매사추세츠 정부와 교회언약에 서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회원권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매사추세츠 회중교회 정치제도를 비판했다. 매사추세츠 (The Massachusetts Bay Colony)는 일반법정 (General Court)을 만들어 영국과는 완전히 독립된 정부를 운영하였다. 일반법정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교회의 회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회 및 국가를 세웠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주한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고 (city on a hill) 정든 고국 영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이주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투표자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은 반드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1648년 매사추세츠 일반법정(General Court)에서는 주 법(the Body of Liberties)을 제정하여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법은 실제로는 1641년 일반법정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1647년 교회 연합회 (Synod)가 형성되었고, 이 교회 연합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학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고, 1648년 캠브리지 플랫폼 (Cambridge Platform)을 교회정치의 규범으로 채택했다. 케임브리지 플랫폼 (Cambridge Platform)은 1648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서 작성된 뉴잉글랜드 회중주의의 기본 문서이며, 회중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역 회중 교회의 자율성을 포함하여, 교회 행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청교도 회중교회 정치 원리를 설명한 캠브리지 플랫폼의 교회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며, 이 언약은 가시적인 언약(visible covenant)이며, 자발성을 강조한다. 이 언약의 목적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자극시키고, 이 교회언약을 근거로 회중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교회언약에서는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감독이나 혹은 상위기관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개교회를 구성하며, 한 회중으로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교회의 치리는 그 교회에서 자치적으로 행하며, 상위 기관으로부터 치리를 받지 아니한다. 개 교회는 사역자와 지도자들을 스스로 선출하며, 회중들의 모든 일들을 개 교회가 처리한다. 각 개별 교회는 외부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갔다. 신학적으로는 회중교회 청교도와 장로교 청교도들의 차이는 없었다. 모두 칼빈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신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회 정치체제는 큰 차이가 있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상위기관이 존재하며, 지교회는 노회의 일원이며, 궁극적으로 최고의 치리 기관은 총회이다. 장로교회 정치체제는 연대주의 체계(Connectional System)를 가진다. 개별 교회는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노회의 일부이고,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구성한다.

지 교회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한다. 장로교회는 대의정치이다. 그러나 당회에는 상회인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는 총회이다. 총회가 최고의 치리기구이다.

그러나 청교도 회중교회는 이러한 상회를 부정하며, 각 지교회는 독립적으로 치리, 운영되며, 외부의 힘을 차단한다. 회중교회는 연대주의 체계를 부정한다.

뉴잉글랜드 회중교회 지도자들은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굳게 믿었다. 존 카튼도 뉴잉글랜드 방식(New England Way)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잉글랜드 방식은 매사추세츠 베이 Colony 교회의 교회 정치, 국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매사추세츠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을 말한다.)

존 카튼이 1645년 〈The Wa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New England〉 책에서 뉴잉글랜드 방식(New England Way)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뉴잉글랜드 회중교회의 회중은 교회언약(visible church covenant)에 헌신하며, 가시적인 성도(visible saints)가 되어야 한다. 모든 회중은 진정으로 중생함을 받은 표시가 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중생의 체험이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청교도 회중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혹은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그들은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주관적인 회심과 중생의 체험을 말해야 했고, 회중이 공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어야 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존 카튼에 의하면, "교회는 말씀의 선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가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여기에서 뉴잉글랜드 교회는 가시적 성도 즉 visible saints를 매우 강조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Cambridge Platform, XII, 1,2와 John Cotton, Of the Holiness of Church-members, p.19 참조하라).

그러나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교회언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장로교 청교도들은 당시 영국에서 청교도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영국교회 장로교 청교도들은 교회는 국가체제 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곧 국가교회(National Church)이었다. 이들에게는 교회언약의 개념이 그들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아니했다.

그리고 영국의 장로교 청교도들은 가시적 성도(visible saints) 개념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장로교 청교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지교회의 온전한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회중교회가 주장하는 것 처럼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주관적인 신앙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들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중들로부터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고 생각했다. 장로교들은 참된 중생자의 분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판단은 자기의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중교회에 의하면 비록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최선을 다해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visible saints)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교회에서 객관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Edmund Morgan,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80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Ⅳ. 공동체 (사회, 국가, 가정) 언약 (1)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을 "청교도 신학의 골수" (the marrow of Puritan divinity)라고 했다. 청교도들은 언약의 개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1624의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본질상 언약의 피조물입니다. 다양한 언약으로 함께 묶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곧 축복입니다." ("We are by nature covenant creatures, bound together by covenants innumerable and together bound by covenant to our God…. Blest be the ties that bind us.")

청교도들은 스스로를 언약 공동체로서(as a covenant community), 언약으로 함께 묶인 백성으로 여겼다.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믿었다.

존 밀턴 (John Milton)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인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 진리의 표준을 세우고… 열방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세상에 개혁을 전파하는 것이다" ("to be agents of His Kingdom, to set a standard of truth, to blow the evangelical trumpet to the nations, to give out reformation to the world") 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공동체 언약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의무화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규율, 자비로운 이타주의, 공적 정신, 국가에 대한 열정, 개혁주의적 열성 (stern discipline, benevolent altruism, public spiritedness, nationalist enthusiasm, and reformist zeal)등의 정신을 국가 (공동체) 언약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공동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복을 주신다.(Corporate Blessing) 그러나 그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에게는 공동체 언약이 매우 중요한 사상이었다.

17세기 영국과 미국 청교도들의 헌장, 헌법, 연설, 기타 여러 가지 문서에서 공동체 언약의 개념이 많이 나타난다.

1614년 스코틀랜드 어느 청교도 도시의 헌장에는 (the 1614 charter of a Scottish Puritan town)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생활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we do solemnly swear to unite together in love, to be vigilant in the faith, to bring God's Word to the nations, to conduct our lives as is due and meet of God's chosen people"). 이것은 전형적인 청교도들의 공동체 언약이다.

1638년 1월 7일 로드 아일랜드 도시 언약(국가적인 공동체 언약)에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엄숙히 우리 자신을 정치 단체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우리의 개인과 생명과 재산을 바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We whose names are written here," reads a seventeenth century (The 7th day of the first month 1638) Rhode Island town compact, "do here solemnly, in the presence of Jehovah, incorporate ourselves into a body politic, and as He shall help will submit our persons, lives, and estates unto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1630년 존 윈스럽(John Winthrop)의 언덕위의 동네 (John Winthrop Dreams of a City on a Hill) 설교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하며 … 세계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애로 서로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필수품 공급을 하며 …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는 절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항상 우리 앞에 놓인 일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줄로 매어진 영의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we are entered into covenant with him for his work; we have taken out a commission … We must be a city on the hill, … a light to the nations of the world. We must entertain each other in brotherly affection … for the supply of other's necessities. … We must delight in each other, make other's conditions our own, rejoice together, mourn together, labor and suffer together, always having before our eyes our commission and community in the work, our community as members of the same body. [S]o shall we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 Lord will be our God, and delight to dwell among us, as his own people, and will command a blessing upon us in all our ways.)

KHL0206@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와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

미국에서 매년 연말이면 인사말로 사용하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즐거운 성탄절)와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행복한 휴일) 용어 사용을 놓고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크리스마스와 할러데이 논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임중 연말에 100만통 이상의 연하장을 각계 각층에 보냈는데 엽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나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라는 인사말을 써 보내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라는 간판이 붙은 마차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실어 날라 백악관 안에 설치하고 워싱턴 DC 연방의회 앞서 진행된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말에 관자(Kwanza) 명절인 흑인 하누카(Hanukkah) 명절을 지켜 유대인들로부터 편향적이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 Christmas 대신에 Holy day란 말을 쓰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빼 버리는 문화를 만들었을 때 몇 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를 복원하고, 백악관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때 미국에서 당연한 것이 많은 화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 Biden 대통령은 "So, Merry Christmas, America.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Merry, merry Christmas."라고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즐거운 성탄절)을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상품 판매와 축하를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왔지만, 한편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특정 종교인 기독교적인 의미의 인사말이라며 이를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외의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해피 할러데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인 허핑턴포스트닷컴(www.huffingtonpost.com)은 칼럼을 통해 크리스마스와 할러데이 용어 사용에 대한 대립은 문화전쟁이라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실제로 한치의 물러남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립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무신론자 단체인 FFRF(Freedom from Reilgion Foundation)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소식을 통해 '미국 내 일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연말 휴가를 크리스마스 브레이크(Christmas break)로 사용하고 있다'며 며 해당 지역 교육국에 항의 e-메일을 보내 이를 '할러데이 브레이크(Holiday break)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정부 관리들은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슬림이나 힌두교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대신 겨울축제를 의미하는 윈터벌(winterval)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영국 체신부가 판매한 성탄절 기념우표에도 아기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그려넣던 전통을 버리고 산타클로스와 전나무를 내세웠습니다. 체신부는 '다종교사회의 성탄절을 반영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키려는 기독교적인 가치 수호를 위한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cil)은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기업들은 나쁜 기업으로, 반대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북돋우고 전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으로 나눠 발표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성탄의 의미를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데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아주 구체적 사건(Fact)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크고 이상한 별 곧 왕의 탄생을 예고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선물한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의 도착 성명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마 2:2)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탄의 의미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찬송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 평화로다"(눅 2:14)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일반인의 출생과 같은 것이 아니고, 또한 성인들의 출생과도 다르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육신(成肉身)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말씀 곧 소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곧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즐거운 성탄절)를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행복한 휴일)로 사용하여 희망을 잃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즐거운 성탄절)의 회복이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4)

은이 서 말이고, 이가 서 말이라…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둘러보니, 여자분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넉넉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자분들은 열심히 생업에 뛰고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옛말 그른 것 없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부에겐 은이 서 말이고, 홀아비에겐 이가 서 말이라는 말은 과부의 버선목에는 은이 가득하고 홀아비의 버선목에는 이가 가득하다는 뜻에서 나온 속담으로,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하여 규모 있게 생활하므로 경제적인 걱정이 없지만, 홀아비는 곤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씻지 않아 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말이겠지요. 재물에서뿐 아니라 싱글 남자분들이 겪는 고충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뜨끈한 콩나물국 하나 끓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할 때 그야말로 뾰족한 수는 기대할 수 없었고, 단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은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혹은 재혼해서 힘들게 맥을 이어가면서 되돌리고자 마음먹고 있다면 진부한 소리지만 그야말로 back to basics,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벧전 3:7). '지식을 따라'는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 장단점을 파악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다음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합니다. 힘든 공사장에 여성이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여군이 있기도 하지만 전쟁터에 당연히 남성만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군복무 의무는 남성 청년에게만 있습니다. 결국 잘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젠 사랑은 커녕 한 치의 정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래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흔하게 붙어 있던 벽보처럼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고 다시금 즐거웠던 시절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무쪼록 가정이 부서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자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혼(말 2:16)을 최선을 다해 비켜 가야 하겠지만 남자분들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한부모 인도자들께서는, 이제 헤어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돌다리는 두들기고 또 두들기며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4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1978 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 여명의 목사 회원과 30 개의 노회, 그리고 650 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 학년도 Zoom 겨울학기 특강**을 실시합니다.

모집과정
1. 학사과정(B.B.S.): 고졸자
2.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M.C.E): 대졸자
3. 목회학 석사 과정(M.Div):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 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선교 장학금(선교 사역자에 대해서는 50%의 장학금이 지급됨)

2024 학년도 Zoom 겨울 특강
대상: 신학박사 (Th. D) 및 목회학박사 (D. Min) 과정
- 과목명 : "기독교 가정상담" (Christian Family Counseling)
- 교 수 : 이관직 박사 (전 총신대 신대원 목회상담학 교수, Ph.D)
- 일 시 : 2024년 1월 8-10 일, 15-17 일 오후 7 시~ 9:30 분(서부시간)

이관직 박사
기독교상담으로 본 잠언 (익투스)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대서)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 (지혜와 사랑)

*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2024학년도 봄학기
- 기간: 2024년 1월 29일 - 5월 15일

(1) 개강예배
- 일시: 2024년 1월30일(월) 오후 7시
- Zoom ID#: 202-901-1366

(2) 개설과목 시간표

Date (7-9:30pm)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History of Reformation (종교개혁사)	조진모교수 Ph. D
Tuesday (화)	Pentateuch (모세오경)	김동진교수 Th. D
Wednesday (수)	Acts of Apostles (사도행전)	정인채교수 Ph. D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무엇을 남기는 인생인가 ?

세상에는 세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적자인생: 갈수록 퇴보하는 인생, 말라가는 인생,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인생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2) 본전인생: 장사로 말하면 10년 20년 수고해 봐야 본전사업입니다. 전혀 발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걸음 하는 인생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3) 흑자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익을 많이 남기고 남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인생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뉴욕에 니키 크로스라는 악명높은 깡패두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그는 부하를 죽이고 살리는 일을 마음대로 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니키 크로스가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하며 전도하는 윌커스 목사님을 발로 걷어차고 실컷 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제 니키 크로스에게 맞은 윌커스 목사님이 팔에 붕대를 감고 기부스를 하고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든 채로 여전히 니키 크로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하더랍니다. 그래서 니키 크로스는 "야, 너나 예수믿고 천당가라."하고는 목사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니키의 옷을 붙잡고 "당신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날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하며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니키 크로스를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니키 크로스는 마음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맞아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인가?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참된 길이 아닌가?" 생각하며 윌커스 목사님을 자기 사무실에 모시고 가서 그날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에 니키 크로스는 모든 죄악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고, 전 미국과 구라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있는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악한자라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위대한 사도바울로 변하였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두 바울처럼 니키 크로스처럼 주님의 손에 잡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발자취에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보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으나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의인으로 살면 의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기아대책… 2023 성탄절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란민의 생존과 그들의 생계 확보를 위한 긴급구호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Kyiv), 드니프로(Dnipro), 크리비리흐(kryvyi Rih)를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기아대책은 성탄절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식량안보 및 생계 지원

고향을 떠난 여성과 아동이 겪어야 하는 식량 및 생계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를 시작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식량·비식량키트를 지급하고 있다.

△아동 교육과 정서지원

난민 아동의 대부분은 폴란드로 이주해 폴란드 학교에 등록하거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온라인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교육현장 경험의 결핍 문제로 이어졌고 아동 교육수준의 격차, 아동정서문제로 이어졌다. 기아대책은 폴란드 루블린과 우크라이나 4개 지역(비시호로드, 보야카, 크리비리흐, 드니프로)에서 아동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 쉘터와 교회 지원

폴란드는 2월 전쟁 발발 이후 약 98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루블린은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 접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현재 약 3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높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있는 폴란드 루블린에 전쟁 발발 2주 이내 긴급구호 대응팀을 파견하여 로컬 NGO와 파트너십을 통해 4개 도시 6개 쉘터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쉘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예배할 수 있는 GLC(God's Light Church)교회 건물 지원과 GLC 교회가 쉘터 운영에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주일예배 참석자가 2022년 50명에서 현재 약 150명으로 성장했고, 11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세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 겨울나기 캠페인 실시

미주한인기아대책(KAFHI)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들이 심각한 식량난과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 겨울나기' 캠페인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중동부 키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지역 1,500가정에 식량키트를 지원하고, 3,000명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 루블린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교회인 God's Light Church의 자립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리 이성자 기자〉

2023년 10대 신학 사건

〈2면에서 계속〉

9. 선거 패배 이후 생명 보호 운동이 재편성되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생명보호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Dobbs가 Roe를 뒤집은 첫해인 2023년 첫 육 개월 동안, 이전이었다면 낙태를 선택했던 어머니에게서 약 3만 2,00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의롭고 생명을 보장하는 법은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이번 가을 선거에서 오하이오에서는 낙태 옹호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켄터키와 버지니아 전역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들을 패배시켰다. 생명보호 운동의 다음 단계로 중요한 건 설득이다.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기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으로 대우받도록 가르쳐야 한다.

8. 팀 켈러가 사망했다.

팀 켈러가 사라진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 미국 교회의 쇠퇴와 갱신에 대해 폭 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후계자가 없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과연 어떤 다른 글을 썼을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정체성에 대한 서구인의 집착과 같은 주제를 성경 주석과 문화 분석을 독특하게 결합해서 써내려가는 글 말이다. 그러나 켈러가 이전 세대의 신학자들로부터 배운 것처럼 켈러를 존경했던 지금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실 것이다.

7.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새 하원의장에게 집중되었다.

미국 국회의사당 테러 이후,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그 용어를 정의하기란 어렵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이 다 조금씩 이 용어 안에 스며들어 혼합되었다. 지난 10월 미국 하원이 마이크 존슨을 의장으로 선출했을 때, 그는 가장 강력한 대표로서 빠르게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되었다.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기치 아래 옛 종교적 우파부터 새롭게 부활한 신정(theonomy)에 이르기까지, 비평가들이 모든 걸 하나로 묶으려고 할 때, 그들은 법이 필연적으로 도덕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단지 그 영향력이 기독교에서 나올지, 다른 종교에서 나올지,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변형에서 나올지의 문제일 뿐이다.

6. 대중의 이목을 끄는 개종은 세속주의에 대한 환멸을 암시한다.

새롭게 기독교에 들어온 아이야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 캐서린 본 드라첸버그(Katherine von Drachenberg), 그리고 몰리 워든(Molly Worthen)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히르시 알리는 신무신론(New Atheism)의 주요 대변인이었다. 리얼리티 TV에서 문신 예술가로 명성을 얻은 본 드라첸버그는 주술과 신비주의를 추구했다. 워든은 역사를 공부하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히 여성에게 희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세속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이 여성을 위해 모든 걸 바꾸셨던 반면에 세속주의는 남성 지배로의 복귀를 위협한다.

5. 탈교회 추세가 기대를 뛰어넘었다.

올해가 되어서야 우리는 지난 25-30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규모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른 종교 관행의 변화로,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이 교회 뒷문으로 도망쳤다. 아니, 다시는 교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반제도적 정신을 고려할 때, 당파 정치와 학대 스캔들을 탈교회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신학의 격하도 의심할 바 없이 한 몫을 했다. 그러나 단지 이사하고 새 교회를 찾지 않는 등, 탈교회의 진짜 이유는 평범하다. 그럼에도 좋은 소식은 신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나마 쉽게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환대 실천에 대한 도전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4. Z세대가 영적 부흥의 조짐을 보인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세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읽으면 당장 널리 퍼진 정신 질환과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혼란 때문에라도 걱정부터 하는 게 당연하다. 물론 1960년대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며 당시는 예수 혁명으로 부흥하지 않았던가? 올해 발생한 에즈베리 각성에 대한 신학적 평가에서는 열정적인 예배와 진정한 부흥에 대한 고무적인 징후가 많이 발견되었다. 아마도 주님께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견뎌온 이 젊은 세대를 위해 부드럽고 감미로운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거 같다.

3. 활동가들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부터 성의 신학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어느 정도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앤디 스탠리가 복음주의자가 동성결혼을 축복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받아들이기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성적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도록 로마가톨릭 신자들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없다. 마찬가지로, 현대 기독교 음악은 종종 성경적 도덕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는 수년 동안 동성 결합을 축복했고, 성공회 내에서 분열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다. 구도자에 민감한 복음주의자, 음악계의 거물, 로마가톨릭, 국가 교회 등을 막론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이다. 역사는 실용주의와 복음주의가 결합하는 순간, 결국에는 신학적 자유주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명한 신학생과 대학생은 남성과 여성을 각각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는 기독교 인류학 수업에 몰려들고 있다.

2. ChatGPT는 기술 미래학자들을 두렵고 놀라게 한다.

아마도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대중의 관심을 끌 만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적이 없는 거 같다. OpenAI CEO 샘 알트먼(Sam Altman)의 미스터리한 해고와 재고용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교회 사역과 신학 교육,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방향이든 또는 나쁜 방향이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는 이미 AI가 정보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따라잡으려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ChatGPT가 당신의 설교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단지 데이터 전송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1. 이스라엘 군대와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이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았다.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공격의 규모와 파괴는 전 세계,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부, 군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진짜 큰 충격은 무고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까지 살해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하마스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하마스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많은 하마스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당화가 수천 년 동안 경쟁을 벌여온 토지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약속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시 122:6).

by Collin Hansen, T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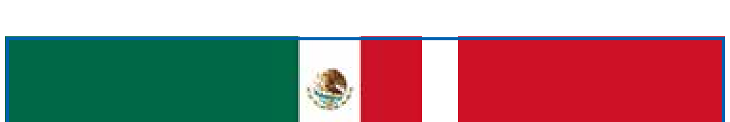
피종진목사 12월 부흥성회

ㅇ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ㅇ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ㅇ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ㅇ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ㅇ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ㅇ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12月1(금)	미국(U.S.A) LA 희망찬교회(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평통 미주 상임고문)
2(토)	미국(U.S.A) LA Vision Church
3(주)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3(주)	미국(U.S.A) LA 은혜선교교회
4(월)~5(화)	미국(U.S.A) Las Vegas 늘푸른교회(노은철 목사)
6(수)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7(목)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8(금)	한국(KOREA) 17시30분 도착
9(토) 정오	남서울중앙교회(Elders year-End) Gathering
10(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1(월) 오전	연세대학교 목회자동문 송년의 날 주관 : 연세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사무총장 이강봉 목사)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11(월) 오후	부천예림교회 주최: 느헤미야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1(월)~12(화)	전주 샛별교회(원장 박순자, 원목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13(수) 오전	남양주 늘푸른진건교회(이석우목사) 010-2250-4690
13(수) 저녁	서울대학교 ABKI 총동창회(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2층 무궁화홀) Benediction
14(목) 오전	국제신학교(학장 강영준목사) 010-9260-1091
14(목) 오후	고양시 축복교회(지경휘 목사) 010-6374-4855
14(목) 오후	한미부흥강사단(KURS)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Special Concert 장소 : 가평공연홀 010-2238-3999
15(금)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ik) 010-2238-4592
16(토) 오전	Business Blessing Event
16(토) 오후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17(주)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8(월)~19(화)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Bethel 찬양교회(하용철 선교사)
20(수)~21(목)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지역 원주민전도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선교사)
22(금)	귀국
22(금)~23(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4(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25(월)	성탄절 Important Charity
2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27(수)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World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28(목) 오전	웃음힐링선교회(총재 이웃음 목사) 010-8947-2011
2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31(주) 자정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02-3411-9191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대치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보내기

Jesus Mexico (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해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활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을 보내실 곳은 /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동부교계 게시판

로즐린 한인교회, 크리스마스콘서트

로즐린한인교회(담임 김사무엘 목사)는 12월 24일 오후 6시 2023년 로즐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 문의: 917-242-1038

제16회 둘로스 경배와 찬양 집회

뉴저지한인목사회에서 후원하는 제16회 둘로스 경배와 찬양 집회가 12월 28일(목) 저녁 8시 뉴저지우리교회(담임 오종민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201-638-1627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유아선교원 모집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1월 8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겨울학기 유아선교원을 개강한다.

▲ 문의: 718-229-0858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한국학교 모집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2024 메시야 한국학교 봄학기를 맞아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4세부터 7학년이고 선착순 60명으로 제한한다. 일시는 1월 20일(토)부터 4월27일(토) 15주간 진행된다.

▲ 문의: 김종순 권사 703-473-9896

뉴욕영사관, 퀸즈 현장민원실 일정 발표

뉴욕영사관은 내년 상반기 퀸즈 현장민원실 운영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퀸즈한인 사무실(163-07 Depot Rd., #B1)에서 운영된다. 이용을 위해서는 퀸즈한인회 (646-467-3282, 646-320-2872)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 문의: 646-674-6000

경운장학회, '영어 웅변대회' 참가자 모집

경운장학회(회장 곽인영)는 '제14회 경운장학회 영어 웅변대회' 참가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주제는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대회 참가 대상은 9~12학년이다. 참가 희망자는 해당 주제로 4~6분 분량의 영어 원고를 내년 2월 19까지 온라인(www.kscholarship.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 문의: 734-657-6951, speech@kscholarship.org

성탄절을 맞아 뉴욕 교계와 단체, 각종 축하공연으로 기쁨 나눠

뉴욕센트럴교회 제 13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뉴욕장로교회 '아말과 동방박사들' 오페라 공연

퀸즈장로교회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탄축하 찬양축제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에 제13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개최했다. 김재열 목사는 헨델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지난 25년 동안 코비드 기간 두 번 빼고는 메시아 연주를 쉬지 않았다"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헨델이 만났던 메시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한 후 헨델의 메시아 연주가 시작됐다.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12월 15일(금) 16일(토) 두 번에 거쳐 본 교회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준비한 잔 카를로 메노티의 '아말과 동방박사들' 오페라 공연을 개최했다. '아말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떠나는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잠시 쉴 곳을 찾아 방문한 곳인 아말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보였다.

▲퀸즈장로교회는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에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성탄축하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김성국 목사는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마 1:15-16)"의 성탄축하찬양 주제를 통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하게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의 방식인 놀라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그를 믿고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성탄이 되면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한 퀸즈장로교회는 오늘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는다"고 전했다.

▲뉴욕미션콰이어(음악감독 제시유)는 12월 18일(월) 오전 10시30분에 유니온프라자케어센터에서 성탄축하공연을 개최했다.

제시유의 섹소폰 연주로 시작된 이번 공연에는 뉴욕미션콰이어, 차임핸드벨, 오카리나 앙상블, 박영표 목사의 톱연주, 소프라노 윤사라와 유제시카의 두엣 등 각각 축하 연주와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송은하 어린이가 댄스와 함께 준비한 최윤섭 목사의 풍선 아트는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송은하 어린이는 댄스를 하는 동안 최윤섭 목사는 다양한 풍선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 송은하 어린이가 공연을 더욱 활기차게 이끌었고 어르신들에게 허그를 하며 위로와 사랑을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4회 정기총회 사진촬영 했다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 사진

뉴욕미션콰이어 유니온 프라자 케어센터 성탄축하공연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4회 정기총회

사역공동체로 거듭나기위해 뛰는 장로연합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14회 정기총회를 12월 16일(토) 정오 12시 산수갑산2에서 개최했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회 염영제 장로, 기도 이주익 장로, 성경봉독 이주수 장로, 특송 조동현 장로, 설교 박태규 목사(뉴욕교협회장), 광고 이주수 장로, 축도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황규복 장로는 "장로연합회가 사역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해 장로연합회는 우크라이나 성도에게 교회 건물을 봉헌하고 케냐에 물이 없어 고생하는 학교에 수도시설을 우물과 함께 설치했다"고 전하며 이 사역을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주수 장로를 소개하며 감사의 박수를 전했다. 또한 황 장로는 "장로연합회가 배가되고 부흥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태규 목사는 '하나님의 뜻(롬 8:28)'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모든 뜻을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달려간다면 장로연합회는 날마다 더 발전하고 장로님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황규복 장로 사회로 시작한 회무는 개회기도 손성대 장로(증경회장), 개회선언 후 지난 2월16일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12월5일 결정한 회칙개정 내용(회원자격을 확대) "회칙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회원)"을 발표했다.

이어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후 임원선거를 했다. 신임회장은 황규복 장로가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4명의 투표결과 선출을 통해서 연임됐고 감사는 유일용 장로, 이주익 장로가 선출됐다. 또한 장로연합회의 고문으로 박태규 목사(뉴욕교협회장),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회장)을 위촉 수락했다. 이날 회의는 송윤섭 장로의 폐회기도와 신임회장 황규복 장로가 폐회를 선언 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 더 큰 주님의 사랑"

지역교회부흥선교회(대표 허윤준 목사)는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를 12월 14일(목)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열었다.

허윤준 목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지 존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하다. 이 교회를 함께 공감하고 인정하고 나누기위해 지역교회부흥선교회가 세워졌다.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눈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신 분은 어른 목사님과 사모님이다. 이에 지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섬겨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고, 성탄축하감사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 더 큰 위로,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용걸 목사는 '남은 생애 (벧전 4: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는 우리의 고민이고 사명이다.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신앙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든 부르시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권했다. 셋째는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서를 구해 이 연말을 잘 정리하여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하라"고 전했다. 이어 정관호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고 소의섭 목사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성탄축하찬양은 G to G (박승호 집사와 이성기 집사)의 진행으로 '행복'을 찬양했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징글벨, 은종, 고요한 밤'을 함께 불렀다. 이어 이용걸 목사의 부인 전은애 사모와 처제 전애실 사모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다. 2개월 전에 구성된 목회자섹소폰동우회(지도 유상열 목사)의 연주를 선보였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지휘 이진아 목사, 단장 박영희 권사)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외 5곡을 연주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디모데목회자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에서 목회자 자녀 이기쁨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이만호 목사(교협증경회장)의 합심기도 후 식사기도는 이준성 목사(교협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홍현숙 기자〉

사랑의 바구니에 동참한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 2023 "사랑의 바구니" 전달

23년째 계속된 사랑의 바구니, 경찰서, 소방서 등 이웃 커뮤니티 기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23년째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바구니' 행사가 올해도 계속됐다. 9.11사태로 슬픔에 싸인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는 23회를 맞아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양로원, 어려운 불우이웃과 주민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올해는 총 130개의 바구니를 퀸즈장로교회 교직원들과 선교회원 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권 다민족 성도들이 12월 14일(목) 오전에 모여 사랑의 바구니를 제작했으며 오후에는 교직원 일동이 플러싱 유니온가에 위치한 109 경찰서, 273 소방서, 너싱홈 등 이웃 커뮤니티 기관들과 어려운 불우이웃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바구니를 전달했다.

바구니에는 각종 계절 과일과 과자와 더불어 사랑의 메세지가 담긴 카드도 담겨 있었다. "크리스마스"라 사라지고 "시즌 그리팅"과 "해피 홀리데이"가 판치는 이 세대 속에 카드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이어"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로 쓰여 있었다.

〈김재상 기자〉

더 노보극장에서 열린 제이어스와 러빙워십 예수아 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제이어스와 러빙워십 예수아 콘서트 성황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 예배이자 축제의 현장'

제이어스(대표 김준영)와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가 주최한 예수아 콘서트가 17일(주일) 오후 7시 20분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더노보 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오래간만에 남가주의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이자 축제의 현장이었다. 콘서트가 열리기 전 삼삼오오 청년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청년세대였던 장년들, 어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참석한 젊은 부부들, 그리고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담임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2시간의 콘서트는 예배였다.

조셉 리 목사는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 콘서트를 통해 나의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라는 찬양과 고백을 통해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란다"며 "2024년도를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여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셉 리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제이어스가 '문들아 머리들어라', '시편 139편', '기뻐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령의 바람' 등을 불렀으며 러빙워십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오 거룩한 밤'을 불렀다. 또한 김준영 대표와 조셉리 목사가 '상처입은 꿈(요 3:16)'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콘서트는 조셉 리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한편 23일과 24일에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City National Grove of Anaheim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 및 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신용 회장 유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9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12월 월례조찬기도회 및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신용 현 회장을 유임키로 결의했다. 신용 회장은 "회칙에 의해 연임까지 했으니 차기 회장이 맡는 것이 옳으나 많은 이사님들과 증경회장단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기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422차 조찬기도회는 성탄절을 맞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며 시작했다. 설교에 나선 한기원 목사는 '순종하기 쉽습니까?(창 12:1-3)'란 제목의 설교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책임지는 것이 보여지는 연합회가 되기를 축복 한다"고 권면했다. 연합회는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위한 기도, 전 세계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21일(목)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금 전달식 및 OC교계단체 연합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재형 목사]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정기총회

회장 이은철 목사, 부회장 정신관 목사

남가주 감리교원로목사회(회장 김광진 목사) 12월 송년회 겸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월) LA동부지역 롤랜하이츠 소재 '베이커홈' 펠만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은퇴목회자와 사모 등 8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원목회는 매년 월례회로 모이고 12월엔 정기총회로 모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 증가추세를 보여 이날도 친교실로 사용되는 펠만홀이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이날 정기총회 후에는 제1회 친선탁구대회가 같은 자리에서 열려 남자단식에서 류문기 목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금년 95세인 류 목사는 젊은 후배 목사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탁구대회 준우승은 정신관 목사, 여자단식 우승은 유 헬렌 사모, 준우승 강미란 사모, 복식 우승은 윤선식 강미란 조가 차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2024년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은철 목사, ▷부회장 정신관 목사, ▷총무 이재형 목사, ▷서기 송성엽 목사, ▷회계 김민희 목사

〈정리: 박준호 기자〉

에제르사모기도회 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린 후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제르사모기도회 6주년 기념 감사예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

에제르사모기도회(대표 이희숙 목사) 제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12일(화)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대표 이희숙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피아노 반주 서은희 사모)에서 이 목사는 "그동안 에제르 사모 기도 모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들과 각 서클 리더들께 특별히 감사하다. 에제르 사모 기도회 6주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드림교회 김영웅 목사가 찬양을 인도한 후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종열 목사(Happy Church) 대표기도, 윤상욱 목사(글렌데일그리스도교회 담임) 성경봉독, 에제르사모찬양팀(반주 서진주) 특별찬양이 있은 후, 김기동 목사(세리토스 충만교회 담임)의 설교와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진행했다. 김기동 목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2-26)'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격요건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따르는 자의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나윤희 사모가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송종록 목사(C국 선교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동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한 뒤, 크리스틴 오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이희숙 목사가 조성현 선교사(멕시코), 송종록 선교사(C국), 한주봉 목사(CMBC)에게 선교비를 전달했다. 이날예배는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가 축도함으로 마쳤다. 에제르 사모 기도회는 2024년 첫 모임을 1월 9일(화)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모임을 갖게 된다. 자세한 것은 (818)970-8070 / heesook1939@gmail.com 대표 이희숙 목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여디디야 교회에서 열린 뮤지컬 더 스톤

뮤지컬 더 스톤

뮤지컬 더 스톤(The Stone) 공연이 16일(토) 오후 4시30분 여디디야교회(담임 양영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극단 TAL(True Actor's League 대표 김영란) 주최로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 토, 주일에 열렸다. 더 스톤은 이민생활의 애환을 그려낸 작품이다.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 신앙인으로서 이중적인 모습 등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줌으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작품이다. 지난 20여년간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에 볼 수 있는 성극 'LA 빈방 있습니까?'를 연출한바 있는 김영란 대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대를 생각했고 그 무대에서 멋진 공연, 좋은 공연을 하고 싶다는 꿈으로 달려왔다"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베델교회 2024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2024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2일(화)부터 6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토요일 오전 6시이며 강사는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 Harold Kim 목사(CCSC 담임), 김은일 총장(C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다.

▲ 문의: (949)854-4010

은혜이슬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이슬새벽부흥회를 1월2일(화)부터 6일(토)까지 실시한다. 일정과 강사는 2일(화) 오전 5시30분 한기홍 담임목사, 3일(수) 오전 5시30분 유수연 전도사(ABC교육위원) 4일(목) 오전 5시30분 영김 가주연방하원의원, 5일(금) 오전 5시30분 김원 전도사(Church of Southland) 6일(토) 오전 6시 김춘근 장로(자마 설립자, GLDI 대표)이다.

▲ 문의: (714)446-620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영생장로교회는 김재연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23일(토) 오후 3시에 갖는다.

▲ 문의: (323)732-7356

LA사랑의교회 성탄축하예배 및 교회탄생 17주년 감사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성탄축하예배 및 교회탄생 17주년 감사예배가 25일(월) 오전 9시30분에 드린다.

▲ 문의: (213)386-2233

세미한교회 2024년 신년특별집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2024년 신년특별집회가 1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오후 7시에 캐롤튼 캠퍼스 본당에서 갖는다. 강사는 이은상 담임목사와 박신웅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이다.

▲ 문의: (972)446-0178

한길교회 2023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2023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를 23일(토) 오후 7에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웨스트힐장로교회 은퇴식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 장로 권사 은퇴식이 31일(주일) 2부예배시간에 거행된다. 이날 배기웅 장로와 김은순, 박인애, 김지자, 홍성천 권사가 은퇴한다.

▲ 문의: (818)884.2391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새로운 일군들이 김한요 담임목사(앞줄 다섯번째)와 기념촬영

베델교회 2023 임직감사예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임직자들이 되라"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17일(주일) 오후 4시30분 임직감사예배를 드리며 사역장로와 안수집사, 사역권사, 전입장로, 협동권사, 서리집사 등 주의 일군들을 세웠다.

베델워십의 찬양과 경배로 예배의 문을 연 임직예배는 기도 김병인 장로, 성경봉독 김한요 목사, 설교 김기섭 목사(LA사랑의 교회 담임) 축도 김한요 목사로 진행됐다.

김기섭 목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9)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심는 방법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 솔선수범하고,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어 어려운 형제를 돕고 자비를 베풀라, 또한 성령의 역사는 회복이다. 깨어진 관계, 결핍된 것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충성된 일군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일군이 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자들의 서약이 있은 후 임직패를 증정한 뒤 임직자들을 위해 다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사역장로 김태원 외 2인, 안수집사 방모세 외 18인, 사역권사 한옥현 외 19인, 전입장로 강춘서 외 3인, 협동권사 조미영외 20인과 남여서리집사를 임명했다. 이날 예배는 김한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베델교회는 Irvine(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 9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제 4대 김한요 담임목사와 더불어, '오직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교회'를 모토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역보다 인격을 (욘4:1-5) 찬 240장

니느웨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입니다.(1-2) 어째서 니느웨의 회개를 싫어하는 모순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역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요나 사역은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본 입니다. 베드로는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지만 요나는 1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한 성 전체가 송두리째 구원받은 변화는 역사상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허탈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져도 엎어진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사역과 업적을 앞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째, 인격의 연단이 사역보다 앞서야 합니다. 요나의 고난이 그를 연단했어도 그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수용하기에 연약한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주를 따를 수 있는 진리는 만고불변한 것입니다.

화 하나님의 구령 열심 (욘4:6-11) 찬 495장

일연의 유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령에 대한 불타는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전도자 자신의 변화를 위해 한 실물교육으로 가르치셨습니다.(6-9) 박넝쿨의 죽음으로 일시적 시원함을 잃었다하여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령의 소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10) 둘째, 한 영혼의 회개시키려는 열정이 자신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잃은 한 마리 양, 잃은 한 드라크마, 잃은 작은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열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잃은 영혼을 찾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열심입니다.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요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의 가치가 깨달아질 때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합시다.

수 여호와만을 섬기자(습1:1-13) 찬 277장

스바냐 선지자는 아몬 왕의 죄를 개혁한 요시야 왕 때 일한 선지자로 시작부터 우주적 심판을 고하며, 유다의 예루살렘이 우상숭배로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말씀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1) 스바냐 개인에게 임한 계시의 하나님은 창조(창 1:1)와 섭리(창 1:3)와 구속(요 1:14)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다가 주님 승천 후,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항상 말씀하십니다. 종말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 주 여호와이십니다.(7) 온 천하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우상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심은 그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일에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주(여호와)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시다.

목 회개하려면 (습1:14-2:3) 찬 317장

수치함이란 절대 표준과 비교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에 무지함으로 매우 둔한 심령으로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성경, 선교를 무수히 외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 자는 자기 배만을 위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야합니다. 15절의 분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질투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는 푸른 나무인데도 꺾여져 그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마른나무인 우리를 푸르게 만드셨습니다.(눅 23:31) 또 그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졌습니다.(롬 5:5) 둘째, 겸손히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환난 날에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불황이 더해 가는 시대를 지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부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금 여호와 교훈을 잘 받자(습3:1-8) 찬328장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8) 왜 그들이 멸망합니까? 첫째, 명령과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에는 순종이, 교훈에는 깨달음이 따라야 하는데, 율법을 범하여 탐욕쟁이가 된 제사장들과 교만한 방백들과 간사한 선지자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풍전등화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알 때 생겨지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의 우상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7)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족이 결국 멸망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려는 바울의 목표를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갑시다.(빌 3:10)

토 회복의 역사 (습3:9-20) 찬 351장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열정으로 섬기는 큰 회개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9) 그 약속은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보이셨습니다. 첫째, 유다가 회복되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출 바벨론 사건은 큰 구원을 어느 정도 성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구원은 범세계적 완전한 구원입니다. 둘째, 이 구원은 사중적 성격을 갖습니다.(17) 임마누엘의 약속과 전능자가 친히 구원하시며(창 3:15)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그림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 만유의 중심에 우뚝 선 교회를 향해 자기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겸손히 주를 의지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49)

"만 백성 기뻐하여라"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매해 연말이 되면 세계 사전 협회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여 하나의 단어로 함축해서 선정한 것을 보면 참 흥미로움을 갖게 합니다. 이 일에 가장 대표적인 세 단체를 뽑는다면 영국의 옥스퍼드, 콜린스, 그리고 딕셔너리 닷컴이 뽑은 '올해의 단어'가 필자의 눈에 인상 깊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옥스퍼드 사전 협회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뜻하는 신조어 '리즈(rizz)'를 선정했습니다. 리즈는 사람을 휘어잡는 강한 매력을 뜻하는 카리스마(charisma)에서 파생된 신조어입니다. 두 번째로 콜린스가 선정한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2023년 AI는 최대 화두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IT 용어로, AI 용어 사용 빈도는 전년 대비 올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통합되고 보편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당장 내일 아침에 프리젠테이션 원고가 필요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냉장고 안에 남은 재료로 차려야 하는 저녁밥 조리법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세번째로, 온라인 사전 사이트인 딕셔너리닷컴 에서는 '환각을 느끼다'(hallucinate)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AI 가 언어와 삶의 미래에 미치는 심오한 파급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검토한 끝에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I시대에 이 단어는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생성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라는 새롭지만 씁쓸한 의미를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선정이 된 단어들은 이 시대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듯하여 큰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진 AI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간 정신 기능 모델링"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심오한 본질을 포착하고 우리의 정신과, 두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들이 환각 증세로 빠지게 되어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다다이즘 (Dadaism) 같은 사조들을 표방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본질의 요소들을 더 큰 혼란의 세계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약에 의해 환각을 느끼는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소들로 인한 환각 증세는 영속적일 수 있기에 큰 우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AI시대의 도래는 자연스러운 인간을 기계에 종속시켜 버리고 결국 인간을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빌미로 온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축제의 주체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정작 세상에 그 누구도 반기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깡촌 시골 베들레헴 어느 짐승의 오물이 가득했던 마구간에서 세상에서의 첫울음을 터트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천해 보이는 모습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서 최상의 존경과 축하의 언어를 구사하여 찬송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마 2:11), 양치던 목자들(눅 2:20) 그리고 천사들(눅 2:13)이었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가 중심이 된 경배였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 캐럴 "만백성 기뻐하여라 (Ye Merry Gentlemen)"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캐럴은 영국의 전통 캐럴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캐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150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영국캐럴은 수년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캐럴을 부르며 오늘날 우리에게 15세기에 사람들이 기억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15세기 교회 음악은 일반적으로 라틴어로 불렸으며 대체로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 참석자는 그 시대의 교회음악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거리에서 더욱 흥겨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이 캐럴의 첫 번째 인쇄본은 1760년에 등장했는데, 당시 이 노래는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멜로디는 1829년에 처음 인쇄되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1833년 William Sandys,(1792-1874)가 편찬한 "Christmas Carols Ancient and Modern"이라는 제목의 컬렉션으로 처음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The First Noel"과 "I Saw Three Ship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 종식되지 않은 큰 전쟁들 (우크레인-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이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들,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가까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더 흔하게 보게되는 마약에 찌들어 좀비로 변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크게 심화하는 경제구조. 이 같은 요소들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소망과 기쁨의 의미에 반해 오히려 큰 실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들로 만들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필자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어느 로마 개선장군의 관에 쓰인 문구가 있습니다. "Momento moriendom esse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에게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최고의 영광 세레머니를 합니다.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행진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된 그를 온 시민들이 열광합니다. 이때 이 마차에는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 한 명이 함께 탑승합니다. 그 노예의 역할은 그 영광의 개선장군 발아래 바짝 엎드려 "Mo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를 연신 외쳐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 철학자 정재현 교수는 "죽음은 미래이면서 미래이기 이전에 이미 과거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나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한 것 같아 우쭐댈 필요도, 또 모든 환경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심한 좌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중요성을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비천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천사들처럼 최상의 경배로 오늘의 캐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를 연신 외쳐야합니다. 비록 세상은 모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iyoon@wmu.edu

담임목사청빙공고

여호수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소속이며, 미국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1대 담임 목사은퇴 (2024년4월 예정)를 준비하며 제2대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미주 한인예수장로교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Full time 으로 목회 경험이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4.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5. 이중언어 설교(한국어/영어)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영어 목회에 비전이 있는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2)
4. 신학교 졸업증명서 (1)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직접 email로 제출)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한국어 설교 2회분, 영어설교 1회분) (USB, CD, 또는 동영상 링크)
7. 신앙 고백서
8. 목회 철학 〈소명〉
9.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여호수아장로교회 공식 이멜로만 접수 받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5. 제출마감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제출처는 jpc1326@gmail.com 입니다.

* 문의 사항들은 이메일(cbrycerim65@gmail.com, 청빙위원회 임종호 장로)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본지가 보도한 2023년 10대뉴스

[편집자주] 튀르키예 지진을 비롯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혼란함이 많았던 세계정세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미주 교계는 그러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과 함께 호흡했으며 활발하게 많은 교계 활동을 이어나갔다. 2023년 한 해 동안 본지가 보도한 교계 10대 뉴스를 게재한다.

1. KAPC 제 47회 총회

(6월3일 1923호 1면, 10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가 23일~26일까지 라과디아 프라자 호텔과 퀸즈장로교회에서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주제아래 총대 목사와 장로, 사모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3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총회장 홍귀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양경선 목사(남가주노회장) 기도, 문덕연 목사(뉴욕동노회장) 성경봉독, 김성국 목사(부총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이날 새로 선출된 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휘장 분배 후 취임사를 통해 "전달받은 이 말씀과 헌법, 교단의 흘러오는 그 모든 정신과 성경적인 가치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밝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거룩한 횃불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잘 타도록 쓰임 받는 교단이 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교단의 정체성을 밝히는 교단 매거진을 발간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 퀸즈장로교회, "The Way"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11월4일 제1944호 10면)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0월29일(주일) 오후 5시 롱아일랜드 대학교 틸레스 센터(LIU Tilles Center)에서 드려졌다. "The Way"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퀸즈장로교회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들과 교회 창립을 함께 했던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지난 5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걸어갈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한편 틸레스 센터 로비에는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교회역사 사진전이 열렸다.

3. 제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20회 선포축하식 열려

(1월21일 1906호 11면)

제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20회 선포축하식이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13일(금) 오후 4시 밀레니움빌트모어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한인 이민역사를 만든 16인 위인전 '길 위에 길을 내다' 책자 발간 축하시간도 함께 가졌다.

4. 뉴욕교협, 목사회 등 튀르키예 지진재해 성금 모금 앞장서

(2월18일 1910호 10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3만7천(13일 통계) 명의 사망자들이 나온 가운데 미주의 각 교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재해성금을 모으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는 회원 교회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회에 구호품과 비상 식료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도 지난해 성지순례에 다녀온 지역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자 기금모금에 나섰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도 튀르키예 재난지원 모금위원장으로 손기성 목사를 임명하고 모금에 나섰다.

5. 2023 국가기도의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

(5월13일 1921호 11면)

2023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연합기도회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JAMA, Soon Movement, 세기모(미주서부지부), KACC, 월드쉐어USA가 공동 주최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나성순복음교회의 주관으로 4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명 목사는 "72번째 모이는 국가기도의 날 함께 참여해 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 미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청교도 신앙에서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희석되고 무너져가고 있기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할 때 우리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가지고 기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 연합감리교회 전국서 5,321개 교회 탈퇴 결의

(7월1일 1927호 9면)

미국 최대 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을 탈퇴하는 교회들과 탈퇴를 결의한 교회가 5,321개로 UMC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UMC 콜로라도주 연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회 산하 한인 교회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교단의 성(性)과 관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교단 탈퇴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안성주 장로는 "교단 탈퇴가 부결되면서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인 20여명이 현재 따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탈퇴 이슈가 본격화된 후 서부지역 교회에서는 교단탈퇴가 어려워지자 성경적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전통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옮겨가거나 새로 교회를 창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디애나연회 존 롬페리스 목사는 "UMC를 떠나려는 자들은 감리교 자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감리교를 계속 이어가려 할 뿐"이라며 "올해가 지나기 전 더 많은 감리교회가 UMC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7.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20주년

(11월18일 1946호 9면)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교회창립 120주년을 맞아 5일(주일) 창립기념 감사예배 및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기념 임직식에는 아이에아 연합감리교회,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및 신도들이 참석해 미주한인 장자교회 창립 120주년을 축하했으며 새로운 이민 100년을 위한 이민공동체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불어 수행해 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8. 뉴욕교협, 2023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개최

(8월5일 1931호 10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7월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사흘간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Let the Church Arise!)란 주제로 2023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임지윤(어린양개혁교회)목사가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뉴욕교협은 교협산하 청소년센터에 $6,000, 북미원주민선교회 박준열 목사에게 $3,000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9. OC교계단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

(2월18일 1910호 11면)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지진의 희생자가 3만천명을 넘었다. 이에 대하여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과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그리고 OC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등 OC교계단체들이 연합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사랑의 손길을 전달한다.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지역의 참사가 담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튀르키예는 6.25 한국전쟁 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가이다. 70년전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도울 때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줬기에 현재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받았던 사랑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10.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설립20주년 감사예배

(2월26일 1911호 11면)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2월 15일(수)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백은학 장로(홀리클럽회장)의 기도와 최순복 권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의 성경봉독,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성시화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소개가 있은 후 진유철 목사가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면 승리한다(빌 1:3-5)'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주성시화운동은 2003년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어 그동안 LA성시화대회, LA홀리클럽 정례모임 등 LA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해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흥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35-24 Union St,
Flushing,NY 11354
Tel. (718)662-66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남일현
141-33 33rd Ave,
Queens, NY 11354
Tel. (808)348-4655
www.epcny.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풍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 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찬 양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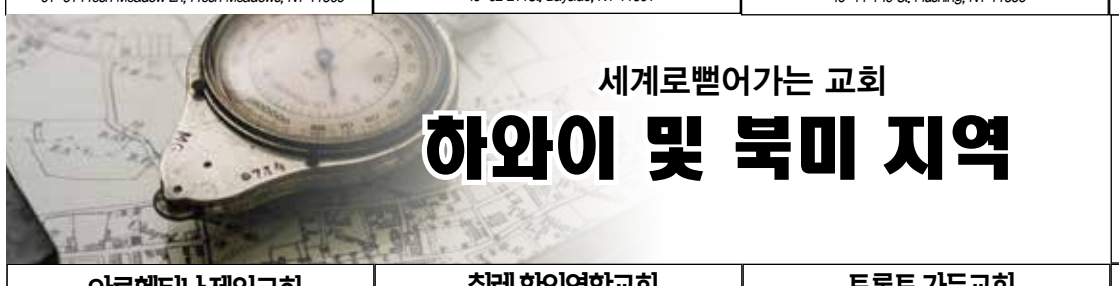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10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 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희망친구 기아대책 Friends of Hope KAFHI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전하는

2023년 성탄절 따뜻한 희망상자

따뜻한 희망상자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상자 30불을 후원하시면

- 미주기아대책이 후원 받은 물품을 더하여 50불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방한용품을 제작,
- 후원교회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지원 대상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난민 1500가정
-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동부 크리비리흐, 드니프로 인근 지역

방한용품 키트

- 1인당 55불(방한복, 목도리, 모자) 3,000개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 4:18)

후원할 곳 희망친구 미주기아대책(KAFHI)

Pay to order KAFHI, (Memo 우크라이나 겨울나기)

주소 |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문의 전화 및 메일 | shchung@fh.org, (703)473-4696 @ 교회로 문의하세요